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[제보자] 어멍 제사 먹으레 가부난 오누이가 잇인디 오누이가 잇인디 밤중 당허나네.

“아이고”

아이 이름 부르멍

“나 제사 먹으레 강 왓저. 문 올라. 문 올라.”

허나네. 문 이젠 열젠 허난, 이젠 오라방은 안 올곡, 누인 올라 주나네. 오라방은 베끼딜 나가네 그 사름 들어온 것 닳으나네 나간 나무 우이 간 앓아불곡, 이젠 누인 죽어나네 해와 돌, 해와 돌님 댜엇젠. 그런 역사가 잇어.

[조사자] 온 사람이, 사람이라?

[제보자] 그거 저 아미도 구신이겠지. 구신이난게, 게난.

“어머니 뭘 먹었우꽈?”

“콩 먹었저.”

“나 하나 줍서.”

“마.”

영 보민 아무것도 아니고.

“마”

영 보민 게난 짐자멍 꿈꾸는 식이라. 응. 콩 먹어 가멍.

“어머니 하나 줍서.”

게난 경 행 엇이난 오라방은 나무 위에 간 살아나곡 누인 그디서 죽곡 헤난 게난 돌이 댜 거는 오라방이 돌과 곶이 비춘다. 뿔은 해와 곶이 비춘다.

- 핵심어 : 제사, 오누이, 구신, 해, 돌, 제사